

핵심주제

- 제4회 동방경제포럼 세부 공식일정 공개
- 2018동방경제포럼 발표를 위해 28개 투자프로젝트 선별
- 극동 핵심 경제분야들을 위한 인재양성 계획 수립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년 8월 28일, Komsomolskaya Pravda

제4회 동방경제포럼 세부 공식일정 공개

동방경제포럼 공식 사이트에 세션 설명과 주요 토론 주제, 핵심 연사들의 정보가 담긴 세부 공식일정이 공개되었다. 일정은 약 70개의 공식행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널세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비즈니스 조찬, 원탁회의들도 포함되어 있다. 관례에 따라 동방경제포럼의 메인 행사는 푸틴 대통령이 참여하는 플래너리 세션이다. 올해 플래너리 세션 주제는 '극동: 가능성의 지평을 확장하다' 이다.

2018동방경제포럼 세부 공식일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p.ru/daily/26874/3916923>

2018년 8월 27일, Interfax

2018 동방경제포럼 문화행사 일정 공개

동방경제포럼 손님들과 참가자들을 위해 공식일정과 함께 풍부한 문화 및 관광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특별히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특별한 임시 전시회들이 마련된다. 모스크바 크레믈린 박물관 전시품들이 '러시아 지도. 역사의 이정표' 전시회에 출품되며 브를로프의 작품전시회도 기획된다.

문화행사의 공연 및 연극 부문으로 바쉬메트가 지도하는 러시아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차르의 신부' 오페라 공연, '잠자는 미녀' 발레 공연이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무대에서 펼쳐지고 또한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무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독주자들과 합주가 계획되어 있다.

포럼 참가자들은 '무엇, 어디, 언제?' 퀴즈쇼에 참여할 수도 있다.

<http://www.interfax.ru/events/news/626672>

2018년 8월 24일, RIA News

제네시스 160 대 제 4회 동방경제포럼 차량지원 목적으로 증정

모스크바에서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에 전달되는 제네시스 차량 증정식이 거행되었다. 로스콘그레스 재단과의 전략파트너관계 이행의 일환으로 제네시스 브랜드가 포럼 조직위에 사료구동 세단 G80 160대를 제공한다. 이 차량은 2년 연속으로 동방경제포럼 공식차량이 된다. 전달된 차량들은 포럼 차량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https://ria.ru/economy/20180824/1527156500.html>

2018년 8월 23일, IA 'East of Russia'

동방경제포럼 발표를 위해 28 개 투자프로젝트 선별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제4회 동방경제포럼 발표를 위해 179개 신청건 중 28개의 투자프로젝트들을 선별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의 총 투자규모는 1조 1629억 3300만 루블이다.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관광, 농업, 교통 및 물류 분야와 연관되어있다.

<https://www.eastrussia.ru/news/dlya-prezentatsii-na-vef-otobrali-28-investitsionnykh-proektov/>

2018년 8월 23일, TASS

극동인적자원개발청,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대학들 및 기업들과 인재양성 계약 체결 예정

극동인적자원개발청 호브라트 사장에 의하면 청은 극동 일류 기업들, 종합대학들, 전문대학들 및 지방 정부들간 일련의 다자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들의 목적은 극동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이다.

<http://tass.ru/obschestvo/5482365>

2018년 8월 22일, Forbes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최초로 '혁신의 지역' 프로젝트 추진

'혁신의 지역'은 일류 전문가들과 함께 트렌드를 논의하고 대화하는 자리로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가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이다. 젊은 과학자, 발명가,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러시아 내 기술분야 사업가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행사 일정은 러시아 및 해외 투자자들, 대기업 최고경영진, 투자 및 벤처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일련의 비즈니스 세션을 포함하며 투자를 할 만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물색하게 된다. 공모전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2018동방경제포럼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http://www.forbes.ru/biznes/365995-innovacii-cifrovoy-ekonomiki-rossii>

2018년 8월 21일, RIA News

러시아와 중국,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지역간 협력 계획서 서명 예정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후춘화 중국 부총리는 8월 21일 러중 정부간 회의에서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이 예정된 협약들을 논의하였다. 주요 협약의 하나로 극동 지역 및 바이칼지역과 중국 동북부 지역들 간 협력 계획서가 있다. 또한 양측은 농업 분야 계획도 논의하였다.

<https://ria.ru/economy/20180821/1526955528.html>

2018년 8월 20일, TASS

사하공화국 (야쿠티야), 동방경제포럼에서 총 1500억 루블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들 발표 예정

동방경제포럼에서 야쿠티야는 약 30개의 투자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큰 프로젝트들은 레나강 횡단 다리 건설, 현존 선도개발구역 확장이다. 칸갈라쓰 친환경 마을 프로젝트와 보석 및 세공 클러스터도 발표된다. 또한 야쿠티야 북동쪽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신규 선도개발구역 조성 프로젝트도 발표된다.

<http://tass.ru/ekonomika/5470565>

극동 뉴스

2018년 8월 23일, IA 'REGNUM'

사할린에 연말까지 총 136억 루블 규모의 89개 사회시설 건설

2018년 말까지 사할린주 89개 사회시설 건설 목적으로 연방예산 136억 루블이 편성되었다. 시설들에 물놀이 및 요양시설, 빙상스포츠단지를 포함한 체육시설과 학교 및 병원 신축과 온수공급시설,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인프라 시설이 포함된다.

<https://regnum.ru/news/2469242.html>

2018년 8월 22일, TASS

극동 경제 핵심 분야들을 위한 인재양성 계획 확정

러시아 정부가 준비한 문건에 의하면 러시아 외교부 산하 국제관계대학, 국립연구대인 고등경제대학, 게르첸 러시아 국립사범대학 등 일류 대학들의 극동 분교가 생길 예정이다. 계획 이행에 따라 극동연방관구의 핵심 분야들에 필요한 직업군에 맞춰 대학생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극동 지역정부들에 최소 20개 이상의 선도직업교육센터들을 설립할 것과 현존하는 전문교육시설들의 근대화를 추진할 것이 지시되었다.

<http://tass.ru/obschestvo/5480318>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

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관계자들을 모을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www.roscongress.org